

농어촌공 진도, 영농철 대비 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총력'

✎ 이창식 기자 | ☎ 승인 2025.03.14 15:10

5.1km 3단 양수 등 저수지 물채우기 대대적 추진



백동저수지 물 채우는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평년저수율 보다 낮은 저수지에 물 채우기를 시행해 농업용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지사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준설사업으로 일시적 저수율이 낮아진 백동저수지를 위해 석교천에서부터 5.1km 구간에 간이양수기를 3단으로 설치하여, 하루 최대 3000톤을 약 2개월 동안 양수 저류함으로써 본격적인 영농기 전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내연저수지는 연동양수장을 가동하여 물 채우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하루 최대 7000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전 직원이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농기에 차질 없이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저수지 준설사업(3개소)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총 8만톤의 농업용수를 확보한 데 이어, 금년에도 퇴적으로 저수량이 부족한 남산, 심동 저수지 준설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용수를 비축하기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영농기에 차질 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저수지 수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 몸으로 직접 체감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보배섬 진도에 풍요로운 물 복지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이창식 기자